불퇴전 각오로 매일 發心·信心 다지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綠樹靑山毘盧身(녹수청산비로신)이요 海上波濤廣長設(해상파도광장설)이라 若人問我解何宗(약인문아해하종)하면 金剛般若定慧力(금강반야정혜력)이라

푸른 나무 푸른 산은 비로자나 전신(全身)이요, 바다 위의 파도소리는 모든 부처님의 법문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종지(宗旨)를 아느냐고 묻는다면 금강반야의 정(定)과 혜(慧)의 힘이라 하리라.

금일(今日)은 무술년 삼동구순(三冬九旬)의 안거(安居)를 시작하는 동안거(冬安居) 결제일(結制日)이라.

결제에 임하는 사부대중들은 이번 안거에는 반드시 대오견성(大悟見性)하겠다는 태산 같은 용맹심과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매일 매일 새롭게 발심(發心)과 신심(信心)을 다져야 할 것이라.

화두참선(話頭參禪)은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챙겨도 뼈골에 사무치는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와 씨름하듯이 화두를 챙기고 의심해야 함이라.

화두와 씨름하라는 것은 씨름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샅바를 잡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경기에 임하듯이, 간화수행자는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고, 또 챙기고 의심하기를 끊어짐이 없이 해서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 인가? 하는 이 화두를 들고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산책을 하나 일을 하나, 하루에도 천번 만번 챙기고 의심하야야 함이라.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마조(馬祖)선사와 석두(石頭)선사, 그리고 혜충(慧忠)국사 이 세 분 선사(禪師)께서 선풍(禪風)을 크게 드날리시던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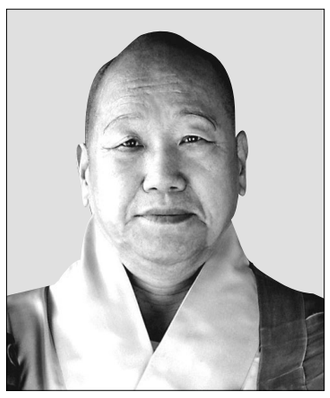
마조선사의 제자인 남전선사가 마조 도인께 인가(印可) 받으신 후, 어느 고암(高庵)에서 지내면서 시절인연(時節因緣)을 기다리시던 때가 있었다.

고암에서 한가로이 생활하고 계실 때, 하루는 객승(客僧)이 찾아와서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다. 하룻밤을 함께 지내고 아침 공양을 지어 드시고는, 남전 선사께서 객승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다.

"나는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밭에 가서 일을 하리니, 점심 공양 때가 되거든, 스님이 밥을 지어 드시고 나에게도 한 그릇 갖다 주시오."

그러고는 남전 선사께서는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점심 공양 시간이 한참 지나도 객스님은 깜깜 무소식이었다.

그래서 남전 선사께서 암자로 돌아와 보니 그 객승이 암자 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모조리 부숴 놓고는 평상(平床)



에 태연히 누워 있었다.

남전 선사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객승이 누워 있는 평상으로 가서 나란히 누우시자, 객승은 벌떡 일어나서 그만 가버렸다.

여기에 불법(佛法)의 고준한 안목(眼目)이 있음이라.

남전 선사께서 후에 출세(出世)하셔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암자에서 살 때에 어떤 영리한 객승이 한 분 왔었는데 오늘에 이르도록 그 객승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하고 그 객승을 두고 크게 칭찬하셨다.

시회대중(時會大衆)이여!

암자 안의 살림살이를 다 부숴버리고는 평상에 누워 있다가, 남전 선사께서 옆에 와 누우시니 벌떡 일어나서 가버린 그 객승의 용심처(用心處)를 알겠는가?

"불조(佛祖)와 더불어 동행하는 안목을 갖추었음이로다."

남전 선사께서 살림살이가 다 부서져 있는 광경을 보시고, 객승이 누워 있는 평상에 가서 나란히 누우셨던 뜻을 알겠는가?

"구름이 허공 가운데 일어났다가 멸하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는 눈을 갖추셨도다."〈중략〉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불법정안(佛法正眼)을 갖춘 선지식을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다. 선지식은 그 낙처(落處)를 먼저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입을 여는 순간에 바로 그 진위(眞僞)를 척척 가려내지 못한다면, 아직 정안(正眼)을 갖추지 못한 참학도중인(參學途中人)인 것이니, 마땅히 다시 참구해야 옳음이라.

그러면 남전 선사께서 귀종선사와 마곡 선사의 답처(答處)를 보시고 혜충국사를 친견하러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시회대중(時會大衆)은 남전 선사를 알겠는가?

백주 대낮에 도적질을 하다가 도적의 몸이 드러나 간파(看破)당함이로다.

세 분의 도인들이 한가하게 사는 세계를 알겠는가?

相喚相呼歸去來(상환상호귀거래)하니 不覺露濕全身衣(불각로습전신의)로다

서로 부르고 부르며 오고 가다가 전신이 이슬에 젖음을 깨닫지 못함이로다.

은산철벽 뚫는 용맹정진을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납자(衲子)의 본분(本分)은 모름지기 화두공안(話頭公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새소리 물소리 들으며 기와집 판도방에서 결가부좌로 용맹 정진하는 것은 은산철벽(銀山鐵壁)을 뚫고자 함이니, 바깥 경계에는 잠시 눈을 감고 내관(內觀)에 집중하여 석 달 후에는 출격장부(出格丈夫)의 모습으로 대면할 것을 바라노라! 〈중략〉

"3세의 부처님들도 이러했고 역대의 조사스님들도 이러했으니 만일 본국(고려) 대왕의 청이 아니었더라면 나는(태고) 이렇게 설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왕 대신들이 여기서 이렇게 믿는다면 그 부처님 네의 보호를 받고 모든 하늘이 복을 내릴 것이다. 국왕은 수명이 길어지고 문무 신하들은 왕의 교화를 도우며, 어진 신하와 재상들은 수명과 녹(祿)이 더욱 늘어나 그 덕화가 백성들에게 미쳐 집집마다 표창을 받을 것이다. 백 천의 요괴들은 그 자취가 사라지고, 간사한 혼과 원한을 품은 도적은 그림자와 얼굴을 감추어 천지는 다시 변하고 일월은 더욱 맑으며, 산하는 더욱 튼튼하고 사직은 거듭 흥왕할 것이다. 그리하여 때를 맞추어 비가 내리고 때를 맞추어 볕이 나 온갖 곡식은 잘 영글고 백성들은 즐거워하며, 상서로운 기린과 고운 빛깔을 가진 봉황은 상서의 징조를 다투어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조의 성현들이 말씀하신 그 말과 같이 부처님을 믿고 하늘의 이치에 순종하여 저절로 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太古錄〉



태고종조(太古宗祖)님의 금구성언(金口聖言)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1만 태고종도와 4천 사암에서 전법 포교하는 주지 교임 전법사는 항상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번영을 위하여 기원하는 염불소리 그치지 않도록 하고,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칠전선원에서 사생결단 정진하는 본분납자들의 외호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 마친 장부는 걸림이 없다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了事丈夫意縱橫(료사장부의종횡) 하니 地獄鐵圍(지옥철위) 也無驚(야무경)이로다. 萬陀靑山自在遊(만타청산자재유) 한대 一珠光明照無窮(일주광명조무궁)이로다.

일 마친 장부의 뜻은 종횡으로 걸림이 없으니 지옥과 철위산도 또한 놀라지 않는도다. 만타청산에 자유자재로 노는데 한 구슬의 마음광명이 비추어 다함이 없도다.

今日(금일)은 三冬結制日(삼동결제일)이라 時會大衆(시회대중)은 個個丈夫(개개장부)어니 如何不了(여하불료)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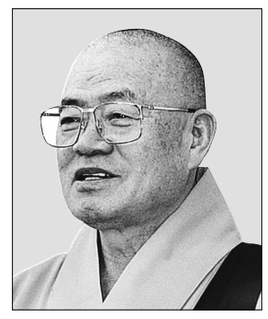
明眼衲僧(명안납승)은 且道(차도)하라. 那箇是了事丈夫(나개시료사장부)인고? 大衆(대중)이 無言(무언)이어늘 良久(양구)에 一喝云(일할운) 江北成枳(강북성지) 江南橘(강남귤)이로다.

芥子一粒(개자일립)이 呑盡法界(탐진법계)하고 瀉出妙用(사출묘용)하니 頭頭(두두)가 活釋迦(활석가)요 物物(물물)이 華藏(화장)이로다. 會麽(회마)?

須是吹毛劍(수시취모검) 丈夫(장부)라야 始得(시득)다.

오늘은 삼동결제날이라 시회대중은 개개인이 대장부거니 어떻게 요달하지 못했는고?

눈 밝은 납승은 한마디 일러라! 어떠한 것이 일 마친 장부인고? 대중이 말이 없거늘 잠깐 있다가 "할" 을 한 번하고 이르시되 강북쪽에는 탱자요 강남쪽에



는 귤이로다.

겨자 한 알이 법계를 삼켜 다하고 묘용을 쏟아내니 낱낱이 산 석가요 물건마다 화장세계로다. 알겠는가?

모름지기 이 취모검의 장부라야 비로소 알리라.

〈중략〉

眞言不可出口(진언불가출구)인데 如何更說(여하갱설)고?

참된 말은 가히 입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시 설하겠는가?

빗장을 대문으로 만들라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장경혜릉(長慶惠稜)선사가 어떤 납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고산(鼓山)에서 옵니다."

"고산에는 문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구절, 즉 '불과석문구(不跨石門句)' 가 있다고 들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일찍이 고산신안(鼓山神晏)선사는 문하의 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산에게는 불과석문구(不跨石門句), 즉 문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구절이 있으니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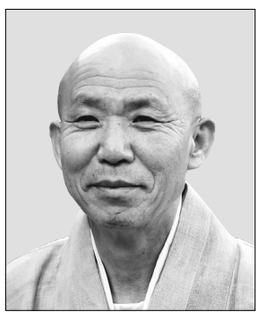
이 물음에 수없는 납자들이 입술을 놀리다가 주장자로 입을 얻어맞거나 할(喝)을 하다가 등짝을 방(棒)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단도직입으로 씹어서 부수려고 하다가 이가 시려 포기하거나 아니면 치아가 그대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침묵으로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마다 선사는 사정없이 꾸짖었습니다.

"이 물음은 반드시 본분사를 깨달은 사람이라야 제대로 알 수 있으니 아무렇게나 대답하지 말라."

이후로 '불과석문구' 는 많은 공부인의 지남(指南)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략〉

이제 일주문을 석문삼아 그 문지방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구순(九旬)의 삼동결제입니다. 일주문에는 모양 있는 자물쇠와 문빗장은 없지만 결제대중은 모양 없는 자물쇠와 문빗장으로 스스로



를 경계해야 합니다. 무문관은 문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문입니다. 이처럼 일주문은 자물쇠와 문빗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물쇠요 문빗장인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이 자물쇠와 문빗장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통해 문밖으로 나가는 대문이 되기도 합니다. 90일 이후에도 빗장이 될 것인지 대문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또 결제가 제대로 된 결제가 된다면 매일 매일 문내(門內)가 문외(門外)와 다름없이 자유롭겠지만 결제가 제대로 된 결제가 되지 못한다면 하루하루마다 문내(門內)에 스스로를 억지로 가두게 될 것입니다. 문내와 문외가 둘이 아닌 도리를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오직 애써 정진해서 공안(公案)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내와 문외의 구별이 필요 없는 대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득여마칠천팔혈(得與麽七穿八穴)하고 득여마십자종횡(得與麽十字縱橫)이로다

이렇게 사방천지 어디에나 통함을 얻었고 이렇게 네거리 어디에나 막힘없음을 얻었네.

자구에 얽매여 허물 짓지 말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또 다시 낙엽이 지고 눈내리는 동안거가 시작됩니다. 묵연히 앉아보니 젊을 때 시봉했던 어떤 선지식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그 분 유언은 저의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늘 살피고 새기는 제 삶의 가장 긴 화두입니다.

念佛落伍(염불락오) 律假面(율가면)
염불은 낙오자의 일이고, 율사는 가면극을 하고
眞言雜術(진언잡술) 禪詐欺(선사기)
진언은 잡술이요, 선사는 사기다.
理判事判(이판사판) 空事判(공사판)
이판, 사판은 모두 허망한 일판이고
이敎, 저敎 雜神堂(잡신당)
이 종교, 저 종교 모두 잡신의 판이라.
이派,저派 謀利輩(모리배)
이 계파, 저 정파 모두 정상모리배요,
學生求職(학생구직) 師糊口(사호구)
학생은 무슨 자리나 구하는 배움이요, 선생은 호구지책
引導巫堂(인도무당) 餘無外(여무외)
어산소리는 무당짓이니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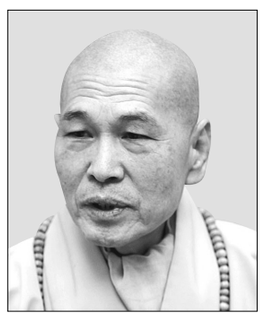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찌 그러할까?' 불만도 있었고 너무 시니컬한 소리로도 여겨졌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래저래 절집에 살아보고 여러 소임도 겪어보고 이것저것 경험도 해보니 점점 그 노스님 말씀 깊은 뜻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제 인생은 허명과 영욕 속에서 낭비하였고, 노년에 이르고 보니 이 말씀이 소중한 법문이었고 화두 중에서 가장 긴 화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치우친 견해를 바로 잡기 위한 방편이 됨입니다. 또 자구에 얽매여 허물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자는 흙덩이 던지는 이를 물어 죽이는 법이니 잘 알아들으십시오.

위에 나온 여러 길 중에서 한 길을 가는 불자라면 살피고 또 살펴서 속지 말고 진실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목표는 모두 같으나 늦고 빠름의 시차가 있고 작은 차이에도 종극에는 천지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자본(돈)과 욕망의 부속품으로 청맹과니 하수인 노릇하며 살다가 결국은 대소사찰 문화재 지킴이, 산지기 신세 되어 그렇게 저렇게 허망하게 세월을 보내어 정법 속알머리는 이교도나 제도권 학자들에게 다 내어줘 버린 것이 아닐까 스스로 참회해봅니다. 離苦得樂(이고득락) 정토세계는 이론으로만 이어져가니 생각하고 또 생각해봅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한번 해보았으니 그저 一笑(일소)하시기 바랍니다.



반야지 구족한 원력보살의 삶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入海算沙徒費力(입해산사도비력)이라
區區未免走紅塵(구구미면주홍진)이니
爭如運出家珍寶(쟁여운출가진보)하야
古木生花別是春(고목생화별시춘)아

바다에 들어가 모래를 세는 일 헛되이 힘만 소비하니 구구히 홍진에 허덕임을 면치 못하리. 힘써 내 집의 진귀한 보배를 꺼내어서 고목에 꽃 피우는 특별한 일만 같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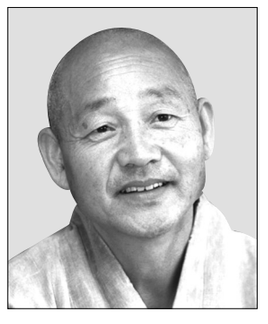
총림대중이 산문출입을 삼가며 삼동결제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 구족하고 있는 본성을 바로 보고 대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내 집에 갖추어져 있는 진귀한 보배를 꺼내어 늘 넉넉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범부는 본래 넉넉하게 갖추어져 있는 보물창고를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며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삼독의 업풍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삼독의 업풍을 소멸하고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삼동 결제를 하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게 하며 일을 줄여서 안으로 모든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많은 방법이 있으나 그중 가장 수승한 방법이 화두를 참구하는 일입니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화두를 잠시도 놓치지 않고 참구하다 보면 반야의 지혜가 현전하고 본래 생멸이 없는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보시를 하면 무주상보시가 이루어지고, 계행을 실천하면 최상승의 무생계(無生戒)를 이루게 됩니다. 인욕 · 정진 ·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를 타파하고 반야지를 구족한 수행자는 행주좌와에 모두 보살도를 실천하고, 어묵동정에 佛行(불행)을 보이게 됩니다. 역경에서 더욱 당당하고 용맹스러운 원력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반야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火不能燒(화불능소)요 水不能溺(수불능약)이며 風不能飄(풍불능표)요 刀不能劈(도불능벽)하니 軟似兜羅(연사두라)하고 硬如鐵壁(경여철벽)하니 天上人間(천상인간)에 古今不識(고금불식)이로다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빠트리지 못하며 바람도 날리지 못하고 칼도 자르지 못하네. 부드럽기는 도라솜과 같고 단단하기는 철벽과 같으니 천상 인간이 예나 지금이나 알지 못하도다.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